

“MBK, 회생신청 기획… 삼부토건, 660억 시세조종 증거확보”

이복현 금감원장, 현안 브리핑
“사건 조사마쳐, 이제 검찰의 시간
MBK, 이익 사유화 손실은 공유
삼부, 김건희 연루 정황 발견안돼”

금융감독원이 최근 시장을 뒤흔든 두 건의 주요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핵심 혐의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기업회생 절차 사전 기획 의혹과 삼부토건의 재건 테마 주가조작 의혹 모두, 금융당국의 광범위한 조사 결과 수사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권한 내 최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이제는 검찰의 시간”이라며 강제 수사를 통한 실제 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감원 “MBK, 신용등급 하락 전 회생 준비 정황 포착”…내부자료 확보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 기업회생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MBK, 삼부토건 등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은 이메일을 포함한 다수의 내부 자료에서 이 같은 정황을 확인했으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21일 해당 사안을 검찰에 긴급 조치(패스트트랙)로 이첩했다.

이복현 원장은 “MBK와 홈플러스는 언론을 통해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상

당 기간 전부터 회생 신청을 기획해왔다”며 “사모펀드라고 해서 대주주의 책임을 예외적으로 다룰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주주는 자본 투입 등 책임을 져야 마땅한데, 현재는 납품업체·임대인·채권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라며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공유하려는 태도로 비칠 수 있

다”고 비판했다.

MBK 측이 자구책 대신 채권단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 회생 신청 이후 납품대금과 임대료 지급 지연 및 감액 요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도 도마에 올랐다. 김병주 MBK 회장의 사재 출연 보도에 대해서는 “개인의 회생 프레임으로 끌고 가는 건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라고 일축했다.

금감원은 최소 5월 말까지 MBK에 대한 검사와 홈플러스 회계감리를 이어갈 예정이며, 검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삼부토건 ‘660억 테마 시세조종’ 고발…김건희 연루설은 증거 못 찾아

삼부토건을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도 본격적인 수사 단계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5~6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명분으로 허위 MOU를 반복 체결하고 테마주로 부각시킨 뒤, 주가 급등 국면에서 주식을 처분해 약 66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포착해 실소유주 이일준 회장 등

10여 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중 100억원가량은 실현된 수익이며, 나머지 400억원 이상은 여전히 미실현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관심을 모았던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전 블랙펠트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수백 개의 계좌와 자금 흐름을 조사했으나 고발로 이어질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종호 전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 급등 직전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남긴 정황이 포착돼 정치권 연루 의혹이 불거졌으나, 범죄 혐의로 특정되지는 않았다.

이 원장은 “조사 초기부터 공정성 논란이 있었던 것도 알고 있다”며 “그래서 모든 자료를 제3자인 검찰에 넘겼고, 수사기관의 객관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BW·CB 매입, 전환, 매도 과정까지 자금 흐름을 전방위로 추적했다”며 “향후 필요시 추가 조사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실적대비 저평가 ‘반등 임박株’ 찾아라”

외국인, SK하이닉스·삼성전자 등 이달 들어 ‘깜짝실적株’ 순매도세
“이탈 중 외국인 자금 재유입 주목”
SK하이닉스 목표가 29만1000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됐다. 이들 회사가 증권가 평가를 넘어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다른 상장사의 실적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는 종목 중 실적 대비 주가 부담이 덜한 종목을 고르라고 조언한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 대비 1.49% 하락한 17만8300원에 마감했다. 이날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했지만, 시장의 수급은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이다.

특히 외국인들은 이달 들어 SK하이닉스를 2조7372억원 순매도하면서 가장 많이 팔아치웠다. 다음으로는 삼성전자를 2조5821억원 순매도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에 외국인 매도세가 집

중됐다. KRX 반도체 지수가 4.38% 급등했던 23일에도 외국인들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각각 552억원, 826억원씩 털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리스크 회피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단기 조정 국면이 투자 기회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관세 우려에 지속 이탈 중인 외국인 자금 재유입 여부에 주목해야 한다”며 “외국인 지분율이 낮아진 업종의 반등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면서 목표가를 올리고 있다. 이달 들어 SK하이닉스에 대한 보고서를 낸 10곳의 목표주가 평균은 29만1000원이다. 상승 여력이 60% 이상 남아 있는 셈이다.

김록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매크로 불확실성으로 인해 전형적인 멀티플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 구간인 만큼 일정 부분의 주가 하락은 불가피하다”면서도 “메모리 반도체는 공급이 제한돼 있다는 측면에서 여타 업종보다 가시성이

높은 업종일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단기 과락을 비중확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시장에서는 실적 시즌을 앞두고 반등 후보로 거론되는 ‘낙폭과대 실적주’를 부상하고 있다. 김용구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대내외 매크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실적 변수에 대한 시장 투자자의 의식과 검증 역시 비례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면서도 “시장은 관련 의구심을 불식하고 기대를 증명하는 투자대안에 대해선 폭발적 주가·수급 반응으로 화답할 공산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낙폭과대 실적주와 서프라이즈 기대주를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1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SK하이닉스를 비롯해 HD현대미포, 씨에스윈드, 삼성전기 등이 언급됐다.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해당 종목들은 연초 이후 코스피 대비 부진한 흐름을 보인 동시에, 2025년 연간 혹은 1분기 실적 모멘텀(전년 대비 증가 및 실적 추정치 1개월 변화율 상승)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저평가 종목들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증권결제대금 일평균 27.2조, 17.7% 증가

예탁원, 1분기 채권결제대금 20% ↑

올해 1분기 증권결제대금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채권결제 규모가 눈에 띄게 확대되며 전체 증가세를 견인했다.

2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증권결제대금은 일평균 27조 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7% 늘었다. 이 가운데 채권결제대금은 25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1% 증가하며 전체 결제대금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주식결제대금은 1조8700억원으로 7% 감소했다.

올해 1분기 코스피와 코스닥 등 장내 주식시장의 일평균 결제대금은 8500억원, 거래대금은 22조6000억원으로 각각 직전 분기 대비 0.7%, 13.4% 증가했다. 장내 채권시장도 일평균 결제대금이 2조6700억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19.9% 증가했다. 거래대금은 7조2400



예탁결제원 전경. /뉴시스

억원으로 2.5% 늘었다.

기관투자자의 결제 동향을 보면, 주식 부문에서는 일평균 결제대금이 1조 200억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2.6% 감소한 반면, 거래대금은 11조8000억원으로 7.3% 증가했다. 채권 부문에서는 기관투자자 결제대금이 22조7000억원으로 9.9% 증가했으며, 거래대금은 32조 5000억원으로 7.2% 늘었다.

/원관희 기자 wkh@

1분기 국내펀드 순자산 1162.5조 5.8% ↑

금융투자협회, 펀드시장 동향
MMF·채권형펀드 자금 집중

올해 1분기 국내 전체 펀드의 순자산 총액이 1162조5000억원을 기록하며 전 분기보다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발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속에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머니마켓펀드(MMF)와 채권형 펀드에 자금이 집중된 결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가 24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펀드시장 동향’에 따르면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를 모두 포함한 국내 펀드의 순자산총액은 지난해 말(1098조7000억원)보다 63조8000억원 늘었다. 1분기

중 전체 펀드 유형에서 자금이 순유입되며 총 62조1000억원이 몰렸다.

유형별로는 MMF와 채권형 펀드가 각각 22조4000억원, 20조1000억원의 순자산 증가를 기록했다. 순유입액은 MMF가 20조8000억원, 채권형 펀드가 17조5000억원에 달했다. MMF는 기업어음, 양도성 예금증서, 채권 등 단기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로, 입출금이 자유롭고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좋아 ‘파킹형 상품’(여유자금 보관 수단)으로 꼽힌다.

주식형 펀드도 1분기 중 6조3000억원의 순자산 증가와 함께 9조1000억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원관희 기자

대신파이낸셜그룹, 아동 의료환경개선 지원

서울아산병원에 성금 전달

대신파이낸셜그룹이 어린이 의료 환경 개선 지원에 나선다.

대신송촌문화재단은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의 의료환경 개선과 모유 관련 연구 지원을 위해 성금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달된 성금은 어린이병원의 진료 및 치료 환경을 개선하고, 환아와 보호자

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의료기기와 시설 확충에 사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모유 영양 및 모유 수유 관련 연구에도 지원된다.

대신송촌문화재단은 대신파이낸셜그룹 창업주 고(故) 양재봉 명예회장의 뜻을 기려 1991년 설립된 재단으로, 사회공헌 활동과 문화·의료 분야 지원을 30여 년간 이어오고 있다. 아산병원과는 지난 2021년 이룬동이 지원을 시작



이어롱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왼쪽)과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이 아동 보건 지원 사업 후원금 전달식을 갖고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원관희 기자

하며 인연을 맺고,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환아를 지원하고 있다. /원관희 기자